

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 
WWW.ARTINPOST.CO.KR DECEMBER 2018

THE MONTHLY PUBLIC ART MAGAZINE  
WWW.ARTINPOST.CO.KR DECEMBER 2018

JACKSON

DANGEROUS

한국미술에 바란다



the remark on the  
korean art scene

📖 우수콘텐츠잡지 2018

9 771975 643707  
ISSN 1975-6437

147  
2018 12



이의성 <생산적인 드로잉>

### 2018 송은미술대상 전

**12.21~2019.2.9 송은아트스페이스** 해마다 미술계가 주목하는 '송은미술대상' 대상 후보자 4명의 전시.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을 리서치해 사운드 아카이브 설치로 선보이는 김준. 개인의 경험에 기반을 둔 내러티브를 회화와 설치에 담아내며 무의식 영역을 파헤치는 박경률. 예술 영역에 노동 개념을 적용하는 설치 작품을 선보이는 이의성. 피사체를 선택하고 촬영하며 '본다'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탐구하는 전명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.



<Reflect Within IV>  
<Fullmoon@Baltic>

### 대런 아몬드 전

**11.15~12.30 PKM 갤러리** 영국 출신 현대미술가로 1997년 yBa의 그룹전 <Sensation>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했던 대런 아몬드(Darren Almond)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. 한국에선 2010년 이후 8년 만에 개최하는 두 번째 개인전이다. 다양한 매체로 시간, 풍경, 기억을 작품에 담아낸 그가 근래 몰두한 작품 10여 점을 만날 수 있다. 특히 1998년부터 약 20년간 보름달의 주기를 주목한 사진 연작 '풀문(Fullmoon)' 중 하나인 <Above the Sea of Fog>를 눈여겨볼 것.



<Untitled (Sin título)>  
<Untitled (Sin título)>

### 에키포 57\_1957~1962 전

**11.12~12.22 올갤러리** 스페인 예술가 그룹 에키포 57(Equipo 57)의 한국 첫 개인전. 에키포 57은 팀을 의미하는 스페인어 'Equipo'와 멤버들이 처음 모인 1957년에서 따온 '57'을 합성한 단어로, 후안 세라노(Juan Serrano), 앙헬 두아르트(Ángel Duarte), 어거스틴 이바롤라(Agustín Ibarrola) 등 젊은 화가, 조각가, 건축가가 모여 파리에서 결성한 그룹이다. 1966년 해산한 에키포 57이 회화, 조각, 공예, 영화 같은 다채로운 매체로 선보인 예술을 되돌아보는 자리다.



<열섬1>  
<열섬5>

### 윤예제\_열섬 전

**10.29~12.22 우민아트센터** 윤예제는 내면의 감정과 시선을 통해 불광천, 창녕 우포늪, 제주 곶자왓 등 실제 장소에서 비현실적 풍경을 꼬집어낸다. 그동안 풍경의 내부를 묘사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'열섬' 시리즈를 통해, 대구의 안심습지와 달성습지의 풍경을 판망하며 재구성한다. 물의 흐름을 따라가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자연물을 작품에 담아내며 삶의 흐름을 되새긴다.



### Temporalizing Temporality 전

**11.5~2019.1.14 갤러리 제이슨함** 벨기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피터 부겐호트(Peter Buggenhout)와 마리 클로케(Marie Cloquet)의 2인 전. 전시 제목은 마르틴 하이데거(Martin Heidegger)의 '존재와 시간(Being and Time)'에 나오는 '시간성(temporality)' 개념에서 따왔다. 건축, 해체, 재건축 과정으로 탄생한 두 작가의 작업을 접해보자.